

통합 갈등·최저 지지율…安 ‘총체적 난국’

당 대표 취임 100일

정치 전략·소통 부재 ‘내홍’

분당 포함 12월 위기설도

핵심기반 호남도 지지율 ‘뚝’

당내 소통·신뢰 회복 과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해 당권을 장악한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현실은 정치적 ‘위기’ 그 자체다.

우선 안 대표는 지난 8월 전대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2개월 내에 지지율을 2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국민의당 지지율은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율은 좀처럼 화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안 대표가 민심의 흐름에 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조금 해지면서 무리하게 정치공학적 접근에 나서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안 대표의 리더십은 당내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정책연대를 둘러싸고 이어진 안 대표의 말 바꾸기에 대해 ‘거짓말 정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 의원들과의 소통 부족도 문제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심도 있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극심한 내용의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울결아트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미래 출범식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싱크탱크였던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미래로 명칭을 새로 바꾸고 1971년 이후 출생한 세대대로 새 임원진을 꾸리는 등 조직을 재정비했다.

정치적 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도 먼저 연연해 하기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추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이유식’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 중도를 선점,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까지 염두에 두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은 사실상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다.

실제로 통합 찬반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지면서 분당까지 포함한 ‘12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안 대표 진영에서는 이달 말 전당원투표와 전

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판 내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통합에 찬성하는 원의 지역위원장들도 4일 당내 모임에 출석시키고 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반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통합파는 노골적으로 안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기에 평화개혁연대 출범 등 안 대표 진영의 통합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거론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우회적으로 비판,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당 내에 DJ와 정치한 분이 많

는데, 남북 통일을 목표로 둔 사람들이 영·호남 통합도 안 되면 어떻게 남북통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발언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안 대표 논리대로라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영호남 화합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라며 “DJ와 함께 지역감정 해소와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호남을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위해 날다 빼었다 하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제는 안철수의 위기는 국민의당의 위기와 연동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당제와 호남 정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 대표가 통합에 연연하기 보다는 당내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내년 지방선거 선전 등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안갯속’

이주영·한선교·김성태 등 6명 난립 우위 후보 없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판도가 안갯속이다.

경선을 9일 남긴 3일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이 이주영(5선)·유기준·조경태·한선교·홍문종(4선)·김성태(3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그 어떤 후보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제 3지대 후보가 ‘다크호스’로 부상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우선, 김성태 의원은 ‘친홍’(친홍준표) 성향의 의원들과 바른정당 출신 북당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견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을 계기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박

(친박근혜)계파. 그러나 당내에 핵심 친박 의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홍 의원이 당선될 경우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중도표 흡수에 한계가 있는 등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유기준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대표 친박 성향의 후보다. 무엇보다 홍문종·유기준 의원이 모두 출마하는 경우 친박표가 갈릴 수 있어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립지대 후보는 이주영·조경태·한선교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은 당내 극심한 계파 갈등을 타파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속에서 비홍·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지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통합로드맵 ‘절반의 성공’

국민의당과 통합포럼 안착…한국당과는 성과 없어

중도개혁 보수세력의 대통합을 내건 바른정당 유승민(號)가 3일로 출항 4주째에 돌입한다. 유 대표는 지난달 13일 취임 일성으로 ‘1개월 내 중도보수 통합로드맵’ 구축을 공언했다.

일단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는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양당 의원들 간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벌써 10회째 열리며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유 대표 취임 이후 ‘정책연대협의체’라는 이름의 공식 기구도 출범했다. 9명 의원의 집단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정책연대협의체를 적극 활용, 국민의당을 주축에 돌입한다. 유 대표는 지난달 13일 취임 일성으로 ‘1개월 내 중도보수 통합로드맵’ 구축을 공언했다.

일단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는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양당 의원들 간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벌써 10회째 열리며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유 대표 취임 이후 ‘정책연대협의체’라는 이름의 공식 기구도 출범했다. 9명 의원의 집단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민주당 ‘朴 탄핵 백서’ 발간

300쪽 분량 여야 협상 과정 기록…발간일에 토론회 개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오는 9일로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의 긴박했던 여야 탄핵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발간한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정국을 주도한 우상호 의원과 당내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오는 8일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기로 했다.

300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해 8월 중순 민주당 내에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는 비공개 TF를 꾸린 때부터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의 긴박했던 원내 상황이 담겼다.

도종환·손혜원·조웅천 의원 등이 참여한 이 ‘최순실 TF’에서 의원들은 각자 가진 정보의 퍼즐을 꿰맞추면서 ‘국정농단’의 실체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자 백서를 기록했다. 이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국정감사 보이콧, 야당만 참여한 국감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의혹 등 큰 흐름이 정리됐다. 아울러 탄핵정국 당시의 각 당의 주요 논쟁과 지도부 메시지 등도 함께 백서에 첨부했다.

민주당은 백서 발간일에 맞춰 탄핵소추안 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park@

文대통령 공약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 무산 위기

경찰·소방관 애로 협의 창구…소위서 합의 안돼 처리시점 불투명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공약의 하나인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3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행정·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소방조직에 직협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기피로 합의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열악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관들도 관리자급과 일

선 직원들 간 소통 창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협의할 길을 타놓자는 것이다.

현재 행안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31명,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10명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노동조합 전 단계로 여겨지는 경찰 직협은 전부터 현장 경찰관과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거론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쟁점으로 본격 부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췌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경감급 이하 경찰관과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직협을 설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 내 노조 설치를 시기상조로 보는 경찰청도 직협 설치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가능한 일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첫 문턱인 행안위 소위에서 지금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이 언제쯤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들이 경찰·소방조직에 직협이 설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위직과 관리자 간 소통기구로서 직협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는 올 연말 임시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수 있을지,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행안위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에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 학년	모집 인원	지원 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 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임학원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